

문화산책

이당금

예술이 백그라운드 대표



‘멈춤 Pause-에포케 Epoche’라는 가장 어려운 연기에 도전하는 당신에게!
무대 위에서 좋은 연기란 정(靜), 중(中), 동(動),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Pause(멈춤)’의 조화로 완성된다. 정적인 순간에도 내면은 동적이어야 하며(정중동), 격렬하게 움직이는 중에도 중심은 정적이어야 한다(동중정), 이 모든 에너지를 응축하고 조절하는 핵심은 바로 멈춤-pause의 지점이다. 연극에서 멈춤-Pause는 다음 대사를 터뜨리기 위한 팽팽한 ‘에너지의 응축’이다. 그것은 더 강력한 전진을 위한 전략적 멈춤이다. 관객을 압도하는 연기는 바로 그 찰나의 틈새에서 태어난다.

하지만 무대 위가 아닌 삶의 길 위에서, 나를 비롯한 당신은 이 멈춤의 기술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제주 올레길 2일 차, 6코스 쇠소깍에서 보복포구를 거쳐 여행자센터로 이어지는 10.1km의 길은 초보자도 3~4시간이면 충분한 경량급 코스다. 한라산 등반을 앞둔 워킹업이자, 저녁 약속을 앞둔 여유로운 도보계획이다. 치밀한 계획은 늘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에 시작은 한없이 가벼웠다. 우양이 벗어낸 소천지의 비경에 넋을 잃고 잠시 후 짧은 낮잠까지 즐김만큼 여유로웠다. 예상보다 꽤 오래잠을 자버렸다. 느긋했던 마음이 약속 시간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조금함이 들이닥쳤다. 빠른 걸음으로 숲길을 빠져나와 이정표를 따라 갔으나 어느 순간부터 올레 표시가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휴대폰 배터리는 10%의 임

의심을 의심하라

계정에 도달해 있었고, 그 와중에 걸려온 전화는 흐트러진 집중력을 파편화했다. 오르막과 내리막의 갈림길에서 비로소 ‘의심’이 고개를 들이 밀었다.
“이 방향이 맞아?”

올레길과 산티아고 순례길은 시그널의 표시가 잘되어 있어서 그 길만 따라가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배낭에 든 지도를 확인했다면 가던 길이 정방향임을 단번에 알았겠지만, 나는 아날로그적 확인을 건너뛰고 이미 꺼져가는 구글 맵에 집착했다. 그렇게 골목을 휘저어 도착한 곳은 허망하게도 조금 전 내가 걸어왔던 바로 그 길이였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해서 돌았던 것이다. 한순간 들이닥친 의심이 나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문학 속에서 의심은 종종 파멸로 묘사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셀로’가 아이고의 간계에 빠져 파멸했다면, 알베르 카뮈의 ‘오해’에서 가족은 소통의 부재와 오만으로 오래된 집을 떠난 아들이자 오빠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극으로 치달는다. 나의 의심은 이 두 비극의 변주였다. 의심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조금함에 가속화하고 조금함은 생각을 잠식하며 나를 혼란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 경험은 나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왜 평온하던 마음에 의심이 든 건가?

의심의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가장 원초적인 능동의 행위인 ‘걷기’가 디지털 기기라는 수동적 의존물에 의해 제한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초간의 혼란에서 단 1분만이라도 모든 판단을 멈추고 관찰해야 했다. 하지만 그 짧은 정지조차 허락하지 않는 불안 때문에 표시 하나로 인해 맹렬하게 오가길 반복했다.

돌이켜보면 시그널이 보이지 않을 때 지도를 꺼내는 대신 더 빨리 뛰었던 올레길의 의심은, 회복이 필요한 몸을

이끌고 공연을 강행해야 했던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다. 철학자들은 의심의 순간에 ‘에포케 Epoche’ 즉 판단 중지를 권한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 공포는 이 멈춤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철학에서 말하는 에포케(Epoche)는 내가 가진 편견과 공포를 괄호 안에 묶어두는 ‘판단 중지’다. 포즈가 연극무대에서 폭발력을 얻기 위한 긴장이라면, 에포케는 본질을 보기 위한 고요한 내러티브이다. 나의 지난 120일이 그러했다. 뇌수술이라는 거대한 생의 시그널이 요동치는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에포케였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불과 3개월만에 충분히 많은 배터리를 옮겨준 채 한달여간 연극 ‘더 퍼터’의 무대 위로 나를 내몰았다.

올레길에서 표식을 잃었을 때 뛰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내 몸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공연이라는 익숙한 거점으로 도망치듯 달려갔던 것이다. 그 결과 나는 내 안의 에너지를 유에 없이 방진해야만 했다. 가장 능동적이어야 할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수동적으로 불안에 굴복하는가. 의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그 움직임이 늘 전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안다. 시그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해 시그널을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지도를 보지 않아도, 혹은 잠시 길을 잃어도, 멈춰 서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내 안에 깃들기를 소망한다.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길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무대 위에서 찰나의 포즈를 장악하는 법은 무의식적으로 익혔으나, 삶의 길 위에서 이 낮은 에포케를 실천하기란 33년차 배우에게도 무척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긴 연극에서 나는 길 위에서? 제대로 된 ‘Pause’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당신들도 그러하시길!

기고

강나루

문학평론가



대학생 때 본 영화 ‘가족의 탄생’은 참 밋밋했다. 대단한 액션이나 심리 트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 간의 관계만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혈연적으로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가족’만이 남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의 복잡한 관계도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이 아니었다. 영화는 세 편의 이야기를 엮어 혈연의 해체와 관계의 재구성을 보여주는 데, 핵심은 누가 누구와 피를 나누었는가 아니라, 상처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어떻게 서로를 보듬고 살 수 있는가였다.

영화 속 인물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범주를 쉽게 묶이지 않는다. 혈연이 아닌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살고, 헤어졌던 관계가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인연들이 결국 하나의 삶으로 포개진다. 그런데 화면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요소는 혈연에 매개한 가계도의 정합성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고단함을 받아내고, 다투다가도 다시 같은 식탁으로 돌아오는 경험의 누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20년 전 영화 ‘가족의 탄생’을 지금 다시 회상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이제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다문화시대, 한국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한국인’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너무 쉽게 ‘한민족’이라고 답한다. 그 말이 지닌 역사적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를 우리로써 지켜주던 과거의 울타리가 오늘날 우리를 일부로 구분짓고 차별하는 창살문으로 사용되려 하는 세태는 참 곤혹스럽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를 삶의 자리로 삼아 살아가는 낯선 사람들이 많다. 귀화한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로 생각하고 자란 아이들도 있다. 학교 교실, 편의점, 병원, 집 근처 식당, 심지어 내부면에서 우리는 이미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도 이름과 피부색, 부모의 출신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같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듣는다. 질문자들은 가벼운 호기심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질문을 받는 이들에게는 소속을 의심하는 차별의 말로 들릴지도 모른다.

다문화시대에 필요한 것은 혈통을 따져서 언제부터 이 땅에 살았는지를 검증하려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일 뿐임을 인지하는 태도이다. 다문화시대의 새로운 기준은 배제를 위한 검증법이 아니라 공존을 향한 상식이어야 한다.

‘가족의 탄생’에서는 ‘정상가족’이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검증하지 않고, 정상이라는 말이 놓쳐 버리는 사연 많고 흠 많은 사람들이 이성하게 부딪치면서도 끝내 한집

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가족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임을 말한다. ‘가족’이 그러하듯, ‘한국인’은 혈연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며 서로의 삶을 떠받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과거를 설명하는 역사적 언어이고, 한반도 밖에서 이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묶는 매개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인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상이 같다고 저절로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피를 나누지 않았다고 끝내 외지인으로 남는 것도 아니다.

이주민이 한국인이 되는 사례가 최근에서야 대두되는 것도 아니다. 태조 이성계의 의형제로 유명한 이지란은 본래 여진족이었고, 백정 혹은 화척이라고 불리던 계층으로 귀화한 유목민족이었다. 그런가하면 베트남에서 온 왕족의 후예도 있고 신라사에서도 여럿 이주민으로 추측되는 인물들이 나타난다. 즉, 과거에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준은 피보다는 함께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함께 배우고, 일하고, 아프고, 돌보고, 싸우고, 화해하며 쌓아 온 시간 말이다. 다문화시대에는 누구의 피가 더 안쪽에 있는지를 묻는 사회가 아니라, 누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사회,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 질문에 더 성실할 때 비로소 현실에 가까워질 것이다.

를 넘어 가공과 유통,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국면이다.

다만 불확실성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양식 환경이 흔들리고, 생산량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가공산업 고도화와 수출시장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번 성과가 일시적 반동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남도가 육상 양식 기술 개발, 가공공장 현대화, 수출단지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생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가격과 유통을 함께 통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1조원’ 성과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성과가 단순한 기록에 머무르지, 산업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전략에 달려 있다.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격과 유통, 수출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확장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전남 김 산업의 행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김영록 전남지사, SK에 서한문 보낸 이유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도체 팹(Fab)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팹은 제조를 뜻하는 ‘Fabrication’의 줄임말로 반도체 집적회로를 생산하는 전문 제조시설을 말한다. 필수 시설인 클린룸(무균) 환경에서 웨이퍼를 여러 공정으로 가공해 트랜지스터·배선 등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테스트·출고까지 수행하는 공장 단이다. 제조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미세화돼 있다고 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월 16만~20만장 규모를 생산하는 용인 팹 1기를 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지사의 팹 설립 제안은 통합특별시를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삼아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실제로 그는 서한문에서 지난해 10월 SK가 오픈 AI와 함께 전남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키로 한 것에 대해 “소외된 지역민에게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며 “이제는 그 희망을 반도체 산업 유치라는 더 큰 결실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우선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잠재 발전량이 444GW에 달하는 에너지 공급 기반은 물론 신안·영광·해남 일대 해상풍력과 태양광 단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RE100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최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핵심 축으로,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연구 중심 대학과 ARM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돼 있다.

통합으로 확보되는 약 20조원 규모의 균형발전 재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클러스터 지정 역시 추진 중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무엇보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 시장 세계 1위인 TSMC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반도체 생산거점의 분산 배치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사의 SK에 대한 구애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칭찬한다’

광주 동구의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이 늘었다. 이 제도를 통해 모금한 기금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며 ‘기부가 지역에 가져오는 기적’을 써 나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물·상품권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동구는 한때 총장로, 금남로 등 지역 최고의 상권을 자랑하며 ‘호남 경제 1번지’라 불릴 정도로 지역경제를 호렷했다. 하지만 도심공동화, 전남도청 이전 등을 겪으며 거주 인구 10만여명에 불과한 광역시 구도 심으로 전락, 지역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조성기 때부터 지정기부사업에 적극 나섰다.

민간 플랫폼,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 등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기금을 확보, 그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엄두도 못 냈던 현안사업들을 해 나갔다.

먼저 1935년 개관한 독립예술영화관인 광주극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000만원을 들여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 연구영역을 실시하고 2억 2000만원을 들여 디지털 영사기를 들여왔고 스크린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또 2016년 창립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중증 경증 발달장애청소년 ET(East Tigers) 야구단이 해체위기에 놓이지 2023년부터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18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기부금은 현재 12억1000만여원이 모금됐다.

이제는 대인동과 케림동 일대 여관·모텔 등 쪽방 42개소에 거주하는 주민 142명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냉난방시설과 생활 필수 가전이 턱없이 부족한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이들은 폭염 등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하다.

이에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 사업비 8800만원을 들여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된 에어컨 45대를 교체하고 냉장고 97대를 지원키로 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은 이런 것’이라는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채 부 370-702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 화 체육 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취재수첩

물김 1조원 시대, 전남 김 산업의 갈림길

이현규

정치부 부장



전남 물김이 처음으로 위판액 1조원을 넘어섰다. 단순한 기록 경신으로 넘기기에 의미가 크다. 수십 년간 양식 규모 확대에 의존해온 김 산업이 이제는 가격과 품질, 유통 구조까지 바뀌는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수출 확대와 가공식품 시장 성장까지 맞물리면서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으로 읽힌다.

현장에서는 이미 생산량이 늘지 않아도 소득이 오르는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길이 더 이상 ‘많이 생산해 많이 파는’ 품목이 아니라, 가공과 브랜드,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키우는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남이 전국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변화는 지역 수산업 전반의 방향을 가능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 같은 흐름은 시장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글로벌 수요 확대와 함께 ‘K-GIM’으로 대표되는 한국 김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경쟁력이 더 중요해졌다. 여기에 가공식품과 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김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단순 원물 판매